

Spiritual Lint: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February 29, 2024

Aloha MPC ‘Ohana,

It was a long time ago now, but when my son David was just a little guy he would occasionally get mixed up about the language we Christians so often tend to use in church. For example, I remember one Sunday morning in early Spring when he was maybe five or six, David walked out of Sunday School one day very confused about why he’d just been told to give something up for “lint.”

The other day as I was cleaning the lint out of our dryer at home, I found myself remembering that. Because confused as my son may have been on that occasion long ago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lint and Lent, maybe the image of a dryer’s full lint guard isn’t such a bad way to think about the spiritual opportunity which the season of Lent offers to us all.

Because just as lint builds up thicker and thicker on a dryer filter until the air flow is impeded, so there are things that I do frequently that can cause an unhelpful buildup to occur inside my soul. The Apostle Paul, in fact, lists what some of those soul-clogging things are in Ephesians 4:31, when he tells us to “get rid of all bitterness, rage, anger, grievances or slurs, along with every form of malice.”

Things like those are like lint inside the human soul. And the longer they build up inside of us, the more they clog up our hearts, so that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over time for the Holy Spirit to flow through us without impediment. Paul cautions us that such inhibitors of the Holy Spirit actually “grieve the Spirit” (Ephesians 4:30) and “quench the Spirit” (1 Thessalonians 5:19). But whatever the figure of speech, the idea is that our hearts need to be kept clean and clear from anything that is like spiritual lint.

And Lent is an optimal time for us to remember that and to recommit ourselves to asking God to clean all the spiritual lint out of us. So, the next time it’s your turn to do the laundry, don’t just check the lint guard, check on the condition of your heart too. Is there any spiritual lint clogging your soul?

Speaking for myself, I try to check the lint guard every time I do the laundry. And yet, despite that, I’m always surprised to find how much lint has built up nonetheless. Likewise, something similar seems often to happen inside my heart too. There always seems to be some lint that’s accumulated there too. And so it always feels good to ask God to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to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Psalm 51:10) so that I can once again feel His Spirit flowing, freely and fully, through me.

Me ke aloha,  
Pastor Ron

영적 린트: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지금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내 아들 데이비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헷갈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른 봄의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5살인가 6살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David는 왜 방금 "린트"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주일학교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건조기의 보푸라기를 청소하던 중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오래 전에 보풀과 사순절의 차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조기의 보푸라기가 가득한 이미지는 사순절이 제공하는 영적 기회에 대해 생각하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푸라기가 공기 흐름을 방해할 때까지 건조기 필터에 점점 더 두껍게 쌓이는 것처럼, 제가 자주 하는 일들이 내 영혼 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풀이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영혼을 막히게 하는 것들 중 일부를 나열하면서 "모든 악독과 분냄과 분냄과 불만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보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래 쌓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욱 막히게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방해 없이 흐르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령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령을 근심하게"(에베소서 4:30) 하고 "성령을 소멸"(살전 5:19)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보풀과 같은 것으로부터 깨끗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보푸라기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데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음 빨래를 할 차례가 되면 보푸라기 가드만 확인하지 말고 마음의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막고 있는 영적인 보풀이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빨래를 할 때마다 보푸라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보푸라기가 쌓였는지를 보고 늘 놀랐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에도 항상 보푸라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0)라고 구하여 그분의 영이 나를 통해 자유롭고 충만하게 흐르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